

사회에 어른이 없다

얼마 전 TV 토론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대학교수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내용인즉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하지 못해 결혼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도 못 낳는 3중고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펴고 있는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많이 늘려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게 그가 내놓은 해법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실 왜곡이 너무 지나치다. 중소기업은 현재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외국인 인력으로 눈길을 돌려 보지만 청년실업을 이유로 쿼터를 줄이는 바람에 요즘에는 사장이 직접 나가 밤을 새우고도 일손을 배정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은 월급 250만 원에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이다. 직장이 번듯한 청년들도 결혼을 많이 늦추는 것을 보면 취업과 결혼을 곧바로 연계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중소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니! 청년들이 몇 년씩 백수로 지낼지언정 중소기업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마치 두통에 감기약 처방하는 식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 나와 재벌이나 금융회사 같은 대기업만 찾는 세태다. 본인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뽕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지 무슨 비책이라도 있는 양 청년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 해결책을 굳이 내놓으려면 대기업을 더 많이 만들거나 기존 대기업을 더 많이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라는 황당한 주장이나 늘어놔야 할 게다.

취직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쓰러워하는 스승의 충정이야 이해하고도 남지만 사태를 오도하는 발언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모름지기 참된 지도자라면 무책임한 '인기 발언'이나 쏟아 내기보다는





이도선 편집인
yds@yna.co.kr

상황을 이해시키고 어떤 어려움도 힘차게 뚫고 나가라고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 청년들을 무조건 편들고 달려서는 곤란하다. 때로는 자상하게 타이르고 때로는 엄하게 나무랄 수 있어야 어른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을 이끌 참된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미풍(美風)은 온데 간데없다. 선생님이 야단이라도 치려고 들면 학생들이 일제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광경이 연출된다. 선배들이 후배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든 공무원사회든 하등 다를 게 없다.

정치권은 더 가관이다. 바야흐로 20년 만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한 해에 치르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표포리즘'이 극성이다. 특히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등으로 백척간두에 선 여당이 한술 더 뜨는 모양새다. 취업수당을 주느니, 등록금을 낮추느니 하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더니 당 최고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 20대 청년을 들어앉히고 4월 총선에서는 20~30대를 40% 가까이 공천하겠다는 심지어 미성년자를 대변할 후보도 영입하겠다는 이리다 영유아 대변인까지 모시겠다고 나설 판이다. 차라리 10대, 20대에게 물려주고 본인들이 그만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경륜 없는 이들이 국정을 맡아 먹은 전례가 되풀이될까봐 심히 걱정스럽다.

지금의 난맥상은 젊은이 몇 명 발탁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직시해야 한다.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 세

계 제일을 자랑(?)하는 기형적인 상황은 '나 몰라라' 하고 등록금 낮추고 취업수당 준다고 떠드는 것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꼴에 다름 아니다. 대학 나와도 수위나 환경미화원, 신문배달원, 가사도우미로 일해야 할 판에 '양질의 일자리' 운운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대학이 '학위공장'이 아니라면 능력, 적성, 취미 등을 고려해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취업전선에 곧장 뛰어드는 편이 사회나 개인이나 더 바람직하다.

학위나 자격증 같은 간판보다는 노력과 능력이 대우받는 쪽으로 사회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졸이나 고졸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일 수는 없다. 건설노동자든, 택시기사든, 공장노동자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한 요즘은 정부 주도로 일고 있는 고졸 채용 붐은 '잠깐의 바람'에 그치고 말 것이다. 대기업의 과도한 처우 못지않게 관행처럼 굳어진 중소기업의 노동력 착취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무릇 위정자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인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할망정 표 얻으려고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영합하다 못해 아부까지 하며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절망감을 안겨 줘서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처럼 "국가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진짜 지도자다. 